

대한변리사회 창립 60주년 축하 메시지

대한변리사회 창립 예순 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국민의 지식재산 보호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지금은 창의적인 지식과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.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특허기술이 기업은 물론 국부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.

우리는 이 분야에서 놀랄 만한 성공을 이뤄 왔습니다. 변리사회가 창립했을 때 500건에도 못 미치던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가 이제 35만 건을 넘어 세계 4위, 국제특허 6위로 발돋움했습니다. 지난해 국제경영개발원(IMD)은 우리나라의 특허생산성 지수를 세계 2위로 평가했습니다. 규모와 경쟁력, 모든 면에서 기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.

정부는 그동안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. 특히 산·학·연 협력체계 구축, 핵심·원천 기술 개발 등 특허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참여정부 출범 당시 23개월 걸리던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14개월로 단축했고,

세계 최초로 온라인 전자민원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특허심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. 앞으로 집중심리제 도입 등을 통해 심판 처리기간도 올 연말까지 6개월로 줄여 명실상부한 선진국형 심판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.

다시 한번 대한변리사회 창립 예순 돌을 축하드리며, 지식재산 강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.